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찬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41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7월 16일 금요일	Issue No.	1741
		Date	May 2, 1969: Fri.

미군의 일방적 철퇴를 미정부고관이 시사

(워싱턴 5월1일발, 공동) 리차드슨 미국무차관은 지난 30일, 내셔널 교육에테비존의 회관에서 파리 회의에서 아무 진전을 보지않고있는것을 시인하고, "파리 회의가 만일 진전 되지않는다면, 남비에트남군의 대치가 진전됨에따라서 미군의 일부가 철퇴할지도 모른다" 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정부고관이 처음으로 미군의 일방적 철퇴의 가능성을 인정한것으로서 주목된다.

일본의 전투부대 해외 파견 10년후에 가능

(워싱턴 5월1일발, 공동) 미국우성당국자는 지난 30일, 일본의 재제대표와의 회의석상, "일본이 안전을 위해서 또 아제아제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하는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될시기는 10년이나 15년후가 될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다음 파장이 말하였다.

1. 제2차세계대전을 체험한 일본의 립점국가들이, 일본의 군대를 받아들여드리게될때까지에는, 같이 긴 세월이 필요할것이다.
2. 일본, 한국, 기타의 동북아제아제국간에서, 어느종류의 안전을 위한 결정을 질타고하는것은 점점 잘어나고있다.

이 회의에서는 국무성의 리차드슨장관, 리차드슨차관등의 의견이 언명하였다. 그런데, 이합선자의 이름은 명백하지않다.

훤림 전투기를 미국이 한국에 증파

(워싱턴 5월1일발, 공동) 미국방총성은 30일, 주한미공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에프4워킹 전투기 1개중대 24기가 한국에 도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증파된것은 미국 루머리다주 에디슨공군기지 소속의 전투기중대로, 이.씨 121편자정찰기가 복조선공군기에 적수된 2, 3일후에 예정되어있는 남비에트남으로의 파견으로부터 한국파견으로 변경될것으로, 한국에서는 군산기지에 배치됨 이.씨 121기의 무장오위에 배치된다.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합동 연습

(펜베타 5월1일발, 공동) 동남아시아 조약기구가맹의 오스트라리아, 비올빈, 타이, 영국, 미국 캐나다의 6개국해군은 5월22일부터 6월7일까지 남지나해에서 합동연습을한다. 이연습은 1954년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결성이때 36회째의 합동연습으로, 항공모함, 잠수함등 함정 60척이 참가한다.



구라파 제국에서의 마이.데이 풍경

(흔든 5월1일밤, 에이피) 구라파의 마이.데이에는 평년과 다른 표정이 보였다. 모스크바의 시권에서 군대의 행렬이 폐지된것을 위시하여, 공산권제국에서는 화평스러운 노동자의 제권이라고 볼수있는 것이 만났는데 비코하여, 서구제국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하는 구라파 마이.데이 풍경이다.

소련은 군대행렬 폐지

모스크바에서는 군행렬의 폐지도 모른것이 바껴, 우선 평장에서 시민집회가 열리고, 부레지네르 공산당서기장이 연설, 이어 시민, 노동자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부레지네르서기장의 연설은 전반적으로 온건하였고, 평화공존정책추진을 강조하고, 중극비난의 말은 전혀 없었다. 공산권제국에서는 동독을 제외하고 각국이 모스크바형의 마이.데이 축전을 따라갔고, 한편 체코에서는 반소.시위의 격화를 우려하고, 행렬은 정지되고, 경찰, 군대가 무력시위에 출동하고 경계하였다. 영국에서는 노동당내각의 규제안에 반대하고 약백만명의 노동자가 24시간의 마이.데이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불란서에서는 내무성령으로 체코의마한가지도 파리에서의 행렬은 금지되었다. 라익의 파격파가 폭주하는것을 우려하여서인지, 공산당제의 노동총동맹과 불란서전학연도 닥쳐오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공산당의 편독을 유지하려고, 시위를 중지하였다. 폴도갈, 스페인의 마이.데이에는 심한 경제가 7갈렸다. 폴도갈에서는 오블르의 미중영사관과 리스본에 등하는 송전선에 장지된 폭탄이 폭발, 내무성은 파리에 본거를 둔 폭력단의 행실도보고, 경관의 순찰자들의 검문을 강화하는한편, 리스본대락을 폐쇄하였다. 스페인의 마도릿트, 발세도나에서는, 경관이 요소를 정비하고 반 후랑코 시위에 대비하였다. 67년4월의 군사정권성립이래 야외의 집회가 금지되어있는 이합에서도 노동자등 약2만명이 북부의 도시 사토니카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하였다.

오기나와 키지 포기 치양는다

존슨 국무차관이 증언

(워싱튼 4월30일밤, 공동) 존슨미국차관은 이번 하원의외국위원회가 안전보장정책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고, "미국은 오기나와의 시정권반원이 지시 오기나와의 미군기지철거를 의미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존슨차관이 증언한것은 3월26일인데, 그의 기록이 이번에 공표되었다. 그에의하면, 존슨차관은 "오기나와의 미군기지도기는 문제도되어있지 않다. 물론 기지포기를 주장하는 급진파인 적축도있다. 문제는 단순히 오기나와의 시정권을일본에 반환하고, 오기나와의 기지를 현재의 일본본토미군기지와 같은 제도하에 두느냐가 문제이다" 라고 지적, 또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핵전력의 면에서도, 비핵대상전력의 면에서도, 우리의 행동의 범위를 넓수있는데도 넘게해 두는것이 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있다. 이의미에서 우리는 일본에잇서서의 우리의 입장, 오기나와의 기지에관한 우리의 입장은, 미국을위해서 변이아니고, 아세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공약을 실행하는데도 국이 필요안것이다.

1. 오기나와에잇서서 미군기지의 필요성은 엄서지지안했는데, 기지의 성격, 기지의 필요성의 성격은 변화할것으로 생각하고있다.

1. 일본인은, 토라리스, 미닛트맨, 미사일의 발달등 과학기술의 진보의 결과, 일본영도에잇서서 기지의 필요성은 저하하였다고 생각하는것같다. 그러나 그것에는 단계적억지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더더러진 생각이라고 확신하고있다.

오기나와의 미군기지 철거에 반대결의 한국국회가 만장일치로 가결

(서울 4월30일밤, 공동) 한국국회는 30일, 정부에 국방력강화를 요구하는동시에, 오기나와의 미군기지철거에 반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결의의 초안은 미정찰기격추사건후, 한국의 국방정책재검토를위해 국회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만든것으로, 정부에대해서 오기나와의 전략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태를 막기위해, 아세아의 자유제국과 교섭을 개시하도록 요구하고있다. 결의는 "또 정부에 북조선의 조발행위대해서는, 경고업시 속히 보복할것, 또 한.미합동방위력의 증강, 미국의 한국군장비군대화공약의 조기실험등을 요구하고있다.

학생의 폭력예 대해 대항하라

(워싱튼 4월30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29일, 미상공회의소제57회년차총회에서 연설, 예상되지안은 학생문제를들고, "미국에잇서서의 자유규정 교육을 죽이지안키 위해, 대학당국이 학생의 폭력예대해서 대항하여야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닉슨대통령은 이연설에서, "오늘의 학생은 전에 보지못한 교육정도가 높고, 과거의 학생보다 깊은 동기를 가지고있다" 라고 젊은 세대를 칭찬 "젊은이와 학생이 과묵이나 규율을 절정하는데, 자기들의 발언권을 요구하는것은 옳다고 생각 한다." 라고 인정하는한편, "그러나 발언권은 인정하드라도, 여하한 사태에서이든지 학생에 대한 권리권을 주어서는안된다" 라고 말하였다. 또 "현시점의 상황은 대통령의 성명을 필요모한다" 라고 인정하고, 학생의 폭력을 비난하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만은 대학에서는 반대와 변회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단 학생, 교직원에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단계에 도달하고있다. 그들은 문서를 약탈하고, 폭력을가하고, 교실에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눈여볼때 나는 지금이야말로, 교직원, 리사회, 대학당국이 사태에 일어서서 대항하여야한다고 믿고있다" 닉슨대통령이 대학문제에대해서 태도를 표명한것은 취임이래 이것으로 세번째, 2월24일에 공표된 헤즈버그.노들담대학장에게의 서한에는 "대학의 운영을 방해하는 학생은 지시 되라시킨다" 라고한 통학장의 강경파의 대책을 칭찬, 또 3월22일에는 학생의 폭력이 계속되는경우에는 문화의 비침이 온다고 경고, "현방정부보다도 대학자신이 문제해결에 당하여야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이번의 발언은 3월의 성명과같은 모순으로 표현이 강하다.

드골 정권 드디어 붕괴

(파리 4월28일밤, 공동) 드골대통령이 정치생명을건 27일의 불란서국민투표의 결과는, 불란서 본도에서 반대가 적반수를 차지하였다. 이결과 동대통령은 28일, 11년에걸친 정권의 자리를 사임한다고 발표하였다. 드골때되는, 불란서를 정치, 경제, 사회적혼란에 빠드림 가능성이 잇는외에, 구라파공동체의 급우, 또 드골정권이 미묘이대해온 동서관계, 중동, 비에트남등의 국제정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것은 확실히하다. 특히 국제정제면에서는, 구가이나 28일, 구라파 각지의 금시장에서는 불란서의 후랭트의 저하를불안, 영국 파운드에대한 불안이 강해져, 동가 불안이 심해질것이 예상되고있다. 불란서신정권성립시, 마르 인상률 포함하는 국제조정은 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

드골 시세 폭락

드골의 워싱튼 드디어 당에 더더러졌다. 국민투표에서의 패퇴를 자택에서드른 78세의 노대통령 드골씨는 27일 사임을 발표하였다. (제4면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드골의 진퇴불린 이번의 투표결과, 불란서의 각민주간지 데스스.루메스가 일지이 평하고있마
 실이, "국민대다수의 장군에의 존경은 지금도 다름이 없으나, 그의 정치력에는 불신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라고한것을 입증한것이다. 드골파의 예상을 못지않고, 투표율이 80%이상의 고율에
 도달하면서, 반대파가 더 많았다는것은 드골의 원권패복을 말하고있다. 국민불리불안 투표2일전
 인 25일밤, 드골 대통령은 레테비르헌설을통해서, 더머지는 운명의 최후의 조건을라고, 국민의
 신임을얻는다면, 72년말까지의 임기만포우, 원만히 하야한다고 공약하였다. 이때 드골의 정치
 생명은, 이미 때가 "근저졌다"고 말할수있다. 그것은 국민에대해서 정권이양의 약속수포를 "근
 은것을 의미하고, 국내정국에있서서의 위신은 저하한것은 물론, 대외면에서도 드골이 종태무리로
 확고했던 환압외교에 한계를 짓는것이 명백하였기때문이다. 드골의 사임은 자발적의사로서,
 투표에 패복하였다고하더라도 법율적으로 류임을 방해할수는다. 따라서 사임후의 김로서
 (1) 자기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 (2) 정권을 일체 금후 단념한다. 두가지가있는데, 국민의
 신임을일론 현재, 선택은 후자가될것이다. 후계대통령은 금후 20일내지 35일이내에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드골파에서는 지금 큰주도권수상이 입후보할 예측이 강하고, 중간파는 에펜.포에
 상원의장을 추천할 모양이다. 각의측은 사회공산당의 밤이 맞지안어, 문제가 만다. 드골의
 이의의 패복은, 불란서 국내를 크게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더머트릴 가능성이 강하다.

불란서 임시 대통령에 포에씨 취임

(파리 4월28일밤, 에이피) 드골대통령은 28일아침, 극적인 간절한 표현으로 "나는 공화국대통령
 으로서의 나의 권한을 종료한다. 이결정은 오늘 정오로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선언을 발표
 하였다. 동대통령의 사임장을 수미한 불란서 헌법 위원회는, 에펜.포에 상원의장이 장정대통령
 으로 취임한다고 발표하였다. 포에잠정대통령은 금후 20일부터 35일간에 대통령선거를 공포한다
 구부도결립수상은 오늘아침 각의를 소집하였는데, 만도 문외담당국무상, 가미란법상등 사의를
 표명하는 각원이 이어 나오고있다.

닉슨대통령, 우감을 표명

(워싱톤 4월28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드골전불란서대통령의 사임에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예정 되어있던 미국의 공식방문은 취소되었는데, 불란서의 시민으로서 밤이하도록
 초대하였다. 또 금후의 선거에서 결정 되는 신불란서대통령에대해서도 초대물하였다.

한국의 부총리 박춘훈씨 내항

한국부총리이며 강력한 경제기획위원장이 박춘훈씨는 4월14일에 시작한 구타마, 미국까지의 순행
 시찰여행을 마치고 귀국의 기도에 지난 5월1일저녁 9시40분 뽀.아메리칸항공기편으로 수행원
 2명을 동반하고 기항하였다. 비행장에는 호랑총영사관의 총영사, 영사, 부영사 그리고 한인단체
 역원 약간명이 출항하여 빈객을 마지하였다. 박부총리를 위한 환영일정은 미정이나 총영사7김
 세원씨가 재휘중이며, 동일행은 4일에 하와이를더나 일본경유 한국으로 더나리라라고한다.

하와이 대학 신총장 취임

주베르기미국대사 아-웬.크리브랜드바사가 하와이대학의 신총장에 임명되었다. 크리브랜드씨는
 라자요, 외교관이요, 행정관으로서 역량이 높히 평가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유능한 총장으로서
 하와이대학의 장래발전에 크게 공헌할것을 확신하고, 신총장을 환영하고있다.

